조계종 내년 예산 1054억원…격론 끝 승인

11월 7일, 정기회 44명 속개
날선 질의…집단퇴장에 지연
49명 동참해 만장일치 가결
오후 이어 10일도 유회 결정
11월 19일 오전 10시 속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11월 7일 속개한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불기 2570(2026)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을 1054억여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44명이 참석해 가까스로 성원이 이뤄졌다.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비구니 호계원 참여' 관련 종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한 항의로 불참했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15% 감액된 325억 2600만원, 특별회계는 10.5% 증액된 72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심의 과정에서는 삼원 통합 후 포교와 교육 종책의 방향성을 묻는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원경 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포교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포교부 예산이 오히려 10.5% 줄었다"며 "내년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불자 운동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빠져 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진 스님도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등 각 부서별 예산을 꼼꼼히 짚으며 "포교종책과 어린이·청소년 불교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에도 예산이 줄었다"며 "관련 보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다수 의원 스님은 "예산안은 이미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올라온 것"이라며 "끝없는 세부 질의는 회의에 비효율적"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격론 끝에 정법회 소속 스님들이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한때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기도 했다. 이에 종회의장단이 정법회 스님들을 설득해 복귀를 이끌어 냈고, 뒤늦게 동참한 의원 스님들을 포함 4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점심 공양 이후 재개된 회의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33명만이 참석,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중앙종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 확정에 이어 오후에는 종책질의와 종무보고 등 나머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원 스님들의 참석을 독려했지만 결국 성원되지 않았고, 중앙종회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라 유회를 선언했다. 중앙종회법 시행규칙 19조는 회의 개의 시 1시간이 경과하도록 의사정족수가 성원되지 않으면 유회를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월 10일에도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됐다. 이날 중앙종회는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제236회 정기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성원이 무산돼 유회가 결정됐다. 본회의장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수석부회장 태효 스님, 차석부회장 경암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원 31명만 출석했다.

이에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법 제43조에 따라 "최대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참석을 독려해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고, 장소는 사무처와 논의에 다시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법 제43조는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했을 때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정기회 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장소는 미정이다. 또 본회의에서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조계종, 종책특보에 노욱선·박준수 임명

진우 스님, 11월 11일 임명장 수여


노욱선


박준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책특별보좌관에 노욱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박준수 국회 법우회(보좌진 불자회) 회장을 새로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11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노욱선 부의장에게 "그간 종단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특보에 버금갈 만큼 잘 도와주셨다"며 "앞으로도 종단 발전을 위해 역할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 부의장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우 스님은 국회 법우회의 신행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박준수 회장에게 "진작 특보로 모셨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회장은 "국회 법우회에는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분기별 모임과 여름 템플스테이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며 "12월 19일에는 총무원 기획국장 스님을 모시고 송년법회도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명에 걸맞게 국회와 종단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기획실장 묘장 스님, 종책특보 우봉 스님(조계종 연예인전법단장, 화계사 주지)이 배석했다.

노욱선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불교문화발전특위 위원장,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종교(불교)본부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종단 정책자문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박준수 회장은 조계종 불교정책기획단 정책위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략기획보좌단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한지아 의원실 보좌관, 국회 법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강훈식 비서실장에 "통합의 정치" 당부

11월 12일, 강훈식 비서실장 예방
최근 청와대 불자회장 제안 수락
'가톨릭' 종교에 "12월 12일 수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청와대 불자회장에 내정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통합의 정치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1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예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불자회장을 맡게 된 강훈식 비서실장이 불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구현의 가르침을 얻고자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실이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 같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분열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야가 균형을 이뤄야 발전의 동력이 된다"며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대통령께서 양쪽의 목소리를 잘 조율해 통합과 화합의 큰 틀에서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이 곁에서 역할을 잘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핑계 같지만 대통령실 업무가 많이 이제야 인사드리게 됐다. 죄송하다"며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인수인계 받을 사람도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 이제는 시스템이 안정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오늘 스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대통령께 잘 전달드리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예방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12월 12일 수계를 받고 진우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을 마친 뒤 강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청와대 불자회장을 맡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집안이 모두 불교 집안이고 부모님이 신심이 깊다"며 "내외부적으로 대통령실 불자회장 제안이 있어, 대통령실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취임법회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교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결혼 전까지는 불자였지만, 결혼 후 가톨릭 신자가 됐다. 그게 (불자회장을 맡는 데) 흉이 되느냐"고 답했다. 그는 '안드레아'라는 세례명까지 사용하고 있어, 청와대 불자회장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내영 기자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

11월 11일, 희락심인당서
107명의 진각행자 탄생



보살십선계를 수지한 진각행자들이 새로 탄생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11월 11일 대구 희락심인당에 삼매야계단을 개설하고 '진기 79(2025)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관정불사에는 배영일(선재·희락심인당) 신교도 등 107명의 수계자들이 보살십선계를 수지했다.

수계관정불사에서 수계자들은 갈마아사리 능원 정사로부터 금강선(金剛線)을, 전계아사리 덕정 정사로부터 금강수(金剛水)를, 교수아사리 정법 정사로부터 계첩(戒牒)을 받고 십선계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갈마아사리 능원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설계단문을 통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믿음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먼저 계를 가지지 않으면 일체의 선한 공덕을 얻지 못하며 청정한 계로서 몸과 마음을 지키면 지혜를 얻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거듭 설하셨다"며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 모든 진각행자들이 환희하여 계를 받아 이를 복전으로 삼고 무량한 공덕 받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수계자를 대표해 배영일(선재) 신교도는 입지게에서 "이제 계를 설해 받았으니 금생으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견고히 가지고 지키겠다"며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물러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존엄한 역사·문화가치와 국민의 정신적 토대를 훼손한

압수수색 조치에 대한 입장문

지난 11월 7일 김제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에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는 참담함과 동시에 모멸감을 느낍니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사법적 판결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저희 또한 불미스런 일로 법적논쟁과 언론에 오르게 된 점은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한 점만으로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는데 있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당 사찰들은 당국의 수사 등에 충분히 성실하게 임할 준비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라는 수단이 동원된 것은 너무나도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갖게하는 처사로 너무나도 과도했습니다.

한반도의 국민과 함께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신앙영역에 과도하고 무차별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법적 조치는 더 크고 더 소중한 가치를 잃게 하였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종교적 성역이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등등의 철저히 불법적 자기방어적인 자세와 상투적인 몰염치의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심하고 고심하는 주안점은 앞선 두 사찰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국민의 신앙적 토대이며 1700년의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법집행에만 천착하여 진행한 점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신문화의 기반까지 허물어 버린다면 금번 조치는 자칫 법집행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종교탄압이라는 모양새로 변질되어 보일 겁니다.

이에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사려깊은 법집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행정당국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불기2569(2025)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일동